

사회

日철도노조 39명 2년째 참배 눈길

5·18 32주년 이모저모

5·18민중항쟁 32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기념식을 비롯해 주말과 휴일에도 5·18 영령을 추모하고 오월정신을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오월어머니회와 간담회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32주년 기념식이 열린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 'JR 西日本 券組'라는 색다른 깃발이 나부껴 눈길을 끌었다.

은 이들은 5·18민중항쟁 사적지와 국립광주박물관 등을 순례하고 오월어머니회와 들불야학단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금남로 5천여명 대동한마당

○~휴일인 20일에는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5000여명이 거리로 나와 시도민 대동한마당 행사가 참여했다.

먹방 나누기, 릴레이 헌혈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부스를 돌며 5·18민중항쟁의 뜻과 의미를 되새겼다.

서울에서 5·18 행사를 위해 광주를 찾은 대학생 이석호(21)씨는 "5·18 정신을 배우기 위해 광주를 찾았는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다보니 오월정신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노동자 오월정신 계승

○~20일 금남로 일대에서는 전국

에서 모인 1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오월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노동자들의 현실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는 한편 오월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 자리에는 공정방송 쟁취와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며 두 달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광주MBC지부와 KBS광주·전남지부 소속 노조원들도 참석, 1980년 5월 광주 시민을 폭도로 묘사했던 아픈 과거를 반성했다.

노조원들은 '32년 만에 쓰는 반성문'을 통해 "32년 전 바로 오늘 밤 광주MBC와 KBS광주를 휘감았던 핏빛 불길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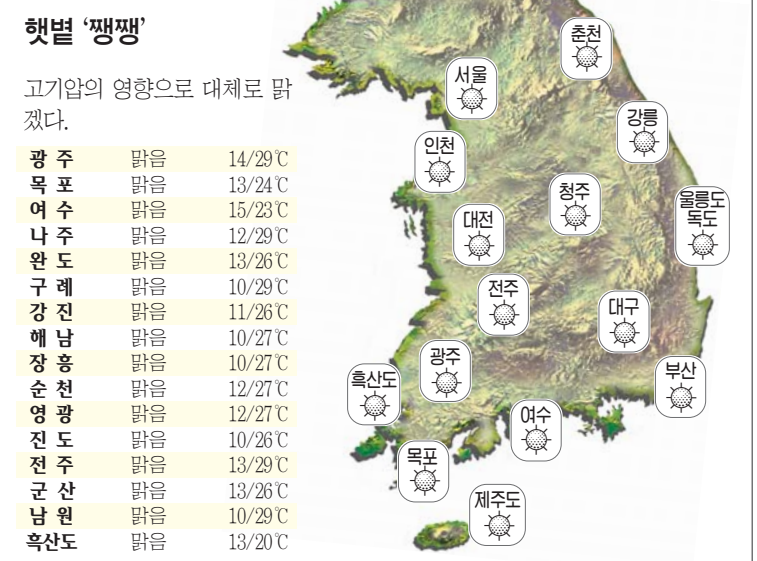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different regions (Seoul, Gyeonggi, etc.)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precipitation probabilities.

왕따 피해 학생 눈물겨운 도전

국립나주병원 '키움학교' 학생 검정고시 합격

학교폭력과 왕따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고교생이 상처를 극복하고 대학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2010년도에 국립나주병원에서 운영하는 '키움학교'에 참여하면 서부터, 키움학교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병원내 학교다.



5월 추모공연.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지난 18일 오전 열린 제3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추모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전남 교사·행정직 근무시간 같아진다

도의회 개정 추진...현재는 교사 오후 5시·직원 6시 퇴근

오는 7월부터 전남지역 학교 행정실 공무원과 교사들의 근무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 조례(14조 근무시간 변경 등)에는 학교장이 직무 성격, 지역이나 기관 특수성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쉬웠다"

전국 고3 2천여명 응시

수능 영어과목을 대체할 가능성이 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BAT) 모의평가가 20일 16개 시도 109개 시험장에서 시행됐다.

하는데 필요한 기초화술영어 능력을 평가하고, 3급은 실용영어 능력을 평가한다. 점수는 A, B, C, D 4등급으로 제공한다.

시행했다. 응시자는 7개 대학 수시모집의 어학특기자 전형이 지원하기 위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응시하기를 희망하는 고3 학생 2294명(2급 1천673명, 3급 621명)이었다.

1교시 듣기는 2, 3급 모두 40분간 32문항, 2교시 읽기는 2, 3급 모두 50분간 32문항이 출제됐다. 3교시 말하기는 2, 3급 모두 15분간 4문항, 4교시 쓰기는 2급 2문항, 3급 4문항으로 시험시간은 똑같이 35분이었다.

500년 전 부부 애뜻한 사랑 담은 한글편지 공개

500년 전 부부의 애뜻한 사랑을 담은 한글 편지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김씨 묘에서 출토된 한글 편지(1555년)가 가장 앞섰다. 발굴 당시 편지는 총 2점이 접혀진 상태로 신창 맹씨의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지리산 둘레길-탐방로 연결구간 25일 개통

지리산 둘레길과 국립공원 탐방로가 연결돼 25일 개통한다.

리주체가 달라 이원화돼있던 국립공원 탐방로 51개 노선 231km를 지리산 둘레길 274km와 연결, 25일 개통식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Large advertisement for 'Segistar' (세계보청기) featuring a cityscape background and text promoting hearing aids.

Footer section containing contact information, website URL (www.segistar.co.kr), and various certification logos (FDA, CE, etc.).